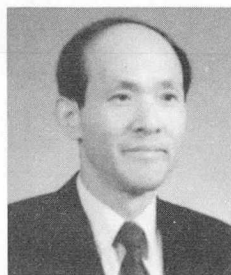


시세 하향국면 돌입



정 호 풍
(본회 지도부장)

1. 머리말

금년은 이상적(비정상)인 일들이 많은 해라고 느껴진다. 지난 5월의 돼지시세는 전례를 깨는 이상 저조한 시세였는가 하면 7월 들어서는 급상승하여 돈육수입 운운하는 말까지 나오게 했는데, 요즈음 날씨가 정상을 깨는 초가을의 기후를 보여서 아침 저녁은 제법 서늘하고 하늘도 높푸르니 장마가 진행되어야 할 시기에 이 또한 비정상적인 것이 아닌가? 7월 상순에 평균 지육가 2,426원으로 호조를 보이다가 중순에는 2,401원으로 보합세를 유지했는데, 하순으로 접어들면서 2,400원선이 무너짐을 보는데, 드디어 하향 국면의 시초라고 느껴지는 것이다.

2. 중앙회가 하는게 뭐냐?

부제의 질문을 받게 되는 경우 집행부의 직원들은 당혹감과 분개를 느끼게 된다. 협동조합 조합원들은 조합에서 이익 배당금을 받게 되고, 같은 지역에서 오가는 시가적인 것들이 있는데, 협회는 무엇을 주느냐는 식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는 분들은 중앙회가 월간지나 주간정보지 보내는 것이 협회일의 전부인 줄 아는 모양이다. 양돈산업이라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한다고 가정할 때 그 배 안에는 뱃머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흥겹게 노래 부르는 사

람도 있겠고, 고스톱판을 벌여서 돈을 따는 사람도, 잃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배에 구멍이 뚫린다거나 풍량이 일게 된다면 그때는 선장의 지시에 의해 질서있게 행동해 줘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앞에도 「우르르팡팡」이란 풍량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으며, 그것을 대비하여 배 전체가 안전하게 항해하여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주장과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상하고 건의하고 때론 투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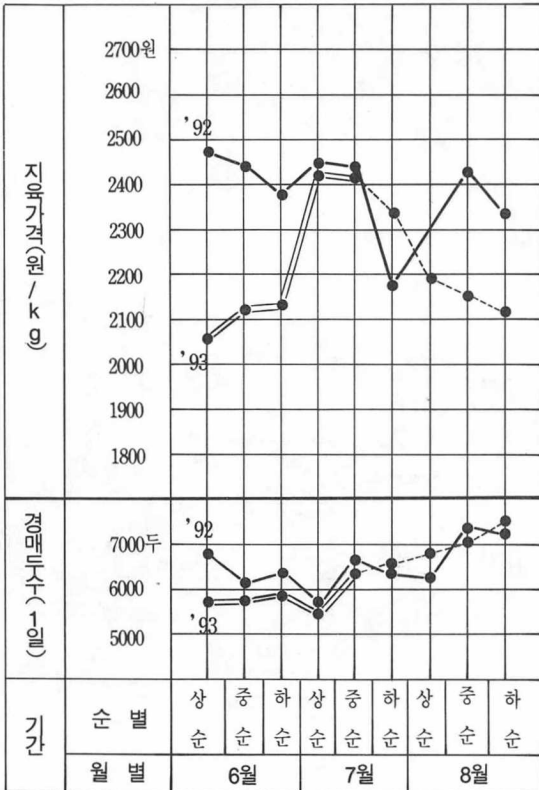
사료값 인상 조짐의 파도가 밀려올 때 저지한 일('92. 11), 돼지고기의 소비축진을 위하여 이에 관련된 각종의 매스컴을 통한 홍보와 소비자들의 의식을 조사하여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일, 무허가축사 추인받을 수 있도록 한 일, 수출돈육의 규격 제한의 폭을 넓힌 일, 시세통보의 모순점에 규격돈과 노폐돈을 구분토록 한 일, 당일 시세를 당일에 녹음해 놓는 일, 최근에는 상한선 철폐안에 대한 협회의 피나는 노력과 투쟁을 회원들이 몰라준다면 집행부에서 무슨 재미로 일할 맛이 나겠는가?

각종 제도의 개선, 법률개정에 있어서 그간도 많이 외쳐왔지만 앞으로도 산적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양돈자조금제도의 입법화로 양돈산업의 배가 순조롭게 항해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지금 실시하는 자조금사업은 불참자가 많은 뿐더러, 회원들마저도 무임승차하는 사례가 많으면서 이

〈표 2〉경매두수 및 가격 동향

(서울 3개 도매시장 기준)



한다. 어디까지나 양돈의 대표성을 지닌 본회가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좋은 싫든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두수 보고를 그토록 말하고 지부출장을 다니지만 아직도 미흡한 상태다. 권리주장 이전에 의무이행을 해야 할 것이다.

3. 하절기 돈가 전망은

7월에 의외로 호가를 유지해 준 것은 역시 물량면에서 공급이 달렸던 것이 큰 원인이었다. 그런데〈표 1〉에서 보는바 두수가 3개월만에 42만두나 증가하였다. 반면 농가 호수는 3월의 8만7천호에서 다시 1만여호가 감소되었으니 전업화 규모증대를 알 수 있다.

〈표 1〉 돼지 두수 및 사육호수 비교

구 분	두 수	사육농가	호당평균
'93년 3월	5,167,599두	87,212호	59.3두
'93년 6월	5,587,565	76,515	73.0
'92년 6월	5,273,336	114,134	46.2

* 연간 37,619호(114,134-76,515)가 폐업됨.
42만두 증가 분포는 2개월령미만 16만
2~4개월령 22만
모든기타 6만

런 저런 일들을 하라고 맡은 많이 한다. 상품개발을 하여 소비촉진 좋은 얘기다. 그런 것을 용역사업으로 연구 기관에 맡기려면 그만큼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할 줄 몰라서 안하는게 아니다. 정보제공의 말들은 많이 하면서도 월간양돈지를 월말의 월례회때나 나와서 가져 가는 곳이 많음을 본다.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세상에 신문이 아닌 구문을 읽게되며, 그나마 읽어보지도 않는 것을 느끼는 것은 양돈지에 게재한 내용들을 질문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제 누가 해주는 시대는 지났다. 스스로 개발하고 생산비를 절감시켜야 한다. 하지만 독자적으로 못할 분야가 있다. 그것이 바로 협회라는 생산자단체가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서 우리의 산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곳이다. 조합이 제도개선을 해주지 못한다. 유사단체들이 하지 못

사료 생산량은 33만8천톤으로 5월의 33만9천톤과 특별나게 차이점을 발견할 수는 없으나, 6월은 5월에 비하여 하루가 적은 점과 더워지는 계절이 될수록 사료의 변질이 우려됨으로 여유있는 생산을 꺼려 이로인한 생산물량이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옛날 못먹을때 우리 조상들은 여름 돼지고기는 잘 먹어야 본전이란 말이 있듯이 오늘날에는 해당도 안되지만 그런 인식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서 하절기 휴가철에는 역시 삼계탕이나 보신탕이 인기가 있게 되므로 자연 돼지 고기는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 거기다가 두수가 늘어나고 하락심리에 의한 조기 출하도 한 몫 하겠으므로 시세전망은 흐리다. 수매 비축된 물량은 없는 상태이니 그것을 의식할 필요는 없겠다(표 2)참조.